

2017. 10. 16. (월) 정무위 시작시(10:00)부터 보도가능

제354회국회(정기회)

국 정 감 사

인 사 말 씀

2017. 10. 16.

금 융 위 원 회

1 인사 말씀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정책 전반에 대해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금융위원회 직원 모두는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제언들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

수차례 말씀 드렸듯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코스닥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시장 패러다임을 '투자자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취약부문 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 확대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포용적 금융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한편, 중금리 대출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기 지원을 통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8월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한 바 있습니다.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서도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적극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과잉대출·고금리대출과 같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채권추심관행을 확립하여
불법적 채권추심으로 인한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금융업 혁신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는
금융분야 로드맵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창업·혁신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 ICT 플랫폼
확산을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국회와 긴밀히 상의 드리겠습니다.

금융산업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재설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권별 인가단위·요건 등
진입장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인가 절차의 투명성·신속성·합리성도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를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자본규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 >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회계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회계투명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와 함께
회사 내부의 감사기능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하위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취약차주 지원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

조선·해운업 등 구조적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하여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채권은행의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시스템 개선 등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인프라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및 대응 >

북한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관계기관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 금융부문 쇄신 >

금융당국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혁신위원회에서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 * ❶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❷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❸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❹ 금융권 업무관행의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중심의 시각이 아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3 마무리 발언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주요 정책들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시해주시는 제언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위원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용범 부위원장입니다.

송준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손병두 사무처장입니다.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입니다.

임규준 대변인입니다.

김학수 기획조정관입니다.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윤창호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김태현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이명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박정훈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금융위원회 간부 명단

연번	성명(생년)		직 위	주요 경력
1		최종구 (1957)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출입은행장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		김용범 (1962)	부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3		송준상 (1964)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
4		유광열 (1964)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분석원장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
5		손병두 (1964)	사무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6		정완규 (1963)	금융정보 분석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금융정책관 ·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장

연번	성명(생년)		직 위	주요 경력
7		임규준 (1963)	대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경제신문 전산제작국장 · 매일경제신문 월간지 총괄국장 · 매일경제신문 디지털뉴스국장
8		김학수 (1965)	기획조정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9		유재수 (1964)	금융정책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 국무조정실 성장화과제관리관 · 금융위원회 FIU기획행정실장
10		윤창호 (1967)	구조개선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금융정책관 ·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장
11		김태현 (1966)	금융서비스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12		이명순 (1968)	중소서민 금융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 駐 EU대사관 재경관
13		박정훈 (1969)	자본시장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금융현장지원단장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 금융위원회 보험과장